



열여덟번째 이야기

방문

[선교사 선교현장③]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초래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이곳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정부의 집회 및 이동 제한으로 많은 사역이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동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는 BEE 사역이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2022년 감염병이 통제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BEE 사역도 재개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사역지를 방문해 사역자와 훈련생을 격려하기로 계획했다. 마침 가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께서 인삼차를 잔뜩 후원해 주셨는데 덕분에 그것을 선물로 가져갈 수 있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코포리두아’그룹은 2010년 아부리 그룹에서 훈련받은 애시에두 목사가 작년 3월에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해서 Christian Life 까지 마쳤다. 코포리두아는 Eastern Region의 capital로서 BEE 사역이 시작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곳이다. 비록 100km가 조금 넘는 근거리이지만 구불구불한 산길을 가야 해서 시간이 3시간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길게 펼쳐진 능선 길은 아름다워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6월 13일 오전에 출발해 교회에 도착하니 담임목사인 세워보 목사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며 QT 나눔에 매우 모범적인 분이다. 세미나가 시작되어 먼저 BEE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Following the Master(마가복음: 십자가를 지고) 1과를 함께 공부하였다.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집중하는 청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세미나를 마치고 인삼차를 선물로 주니 “진생 티(Ginseng Tea)!” 하며 좋아한다. 주님께서 훈련받은 이 청년들을 사용해 그 지역이 작은 예수들로 넘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10월에 예정된 토고의 ‘Badou’그룹과 가나의 ‘은칸타’그룹의 졸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6월 16일, 아내가 준비한 김밥과 간식을 잔뜩 챙겨서 일찌감치 집에서 출발했다. 바두까지는 약 270km인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국경을 지나야 해서 6시간 이상 소요된다. 작년에 바두를 방문한 경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雨期라 도로 상태가 염려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출발했다. 간간히 비가 왔지만, 다행히 도로가 침수된 곳은 없었다. 토고 국경에 도착하니 다니엘 사역자와 베나니아 목사가 초청장을 준비해 마중 나와 있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알게 된 이민국 직원이 내 얼굴을 기억해 비자 없이 입국 도장을 찍어줘서 토고에 입국하게 되었다. 물론 인삼차 선물이 한몫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바두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회 교회에 도착해 훈련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DPM 졸업을 위한 종합시험을 치렀다. 놀라운 것은 11명 모두 이미 자신의 그룹을 만들어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산길을 통해 가나와 토고 국경을 넘나들며 사역한 다니엘 사역자의 헌신으로 토고의 작은 도시인 바두에서 제일 먼저 제자훈련이 열매를 맺고 있다. 모든 훈련생이 종합시험을 통과했는데, 그것으로 다니엘 사역자가 잘 가르쳤고 훈련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시험 후에는 BEE 사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10월에 있을 토고 제1회 졸업식에 대해서 안내했다. 예정 시간보다 늦어져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힘내라며 인삼차 한 상자씩 선물하고 그룹 사진을 찍고 다시 국경을 통과해 가나로 돌아왔다.

가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90km 거리의 은칸타에 이르는 도로 상태는 2018년 졸업식을 위해 방문했을 때보다 나아 보였다. 훈련생들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 마음이 조금 좋았지만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그 그룹은 3세대 제자인 아바비오 목사와 치에이 사역자가 이미 훈련을 마쳤지만, 코로나19로 졸업식을 할 수 없었다. 교회에 도착하니 훈련생 대부분이 청년들이었고 초면이었지만 BEE 사역에 대해 비전을 나누는 후에 배운 것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권면했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졸업식을 안내하고 힘내라며 인삼차를 나누고 기념 사진을 남겼다. 긴 하루였지만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이번 사역지 방문을 통해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 해도 찾아가 얼굴을 마주 볼 때 기쁨이 배가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 2009년 선교사로 파송된 초창기,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사역지를 종횡무진 다니던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선교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재충전되는 경험을 하였다.



[글쓴이 김용달 선교사]



2009년 아내 강혜경 선교사와 함께 BEE Korea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나에서 14년째 사역 중이다. Youtube 채널 '김용달tv'를 통해 선교지의 모습을 전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다.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여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7월 15일(토) 6:30 한동홀에서 ‘23 All & One’이 있습니다. BEE Korea의 사역과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 되는 시간에 BEE 가족을 초대합니다!



3. 2023 ‘여름방학 특강’이 준비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많은 참석과 홍보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월저녁-중)	6/12-7/31
성경을 펼쳐라 I	(월저녁-중)	6/12-8/28
그리스도인의 결혼	(토저녁-도곡)	6/17-8/12
모세오경	(일저녁-중)	7/2-8/27
히브리서	(화오전-202호)	7/4-8/29

4. 2023 하반기 BEE 단기사역(아웃리치)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을 축복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BEE 단기사역(아웃리치) 신청 안내

- ✓ **아프리카**
 1. 10/07-14: 케냐(WLICCC)
 2. 10/15-23: 탄자니아(WLICCC)
 3. 10/24-31: 졸업식(라이베리아, 가나, 토고)
- ✓ **필리핀**
 1. 8/22 - 26 부두안(민다나오): 허브리서 세미나
 2. 8/28-9/01 까비떼(마닐라 근처)

졸업식(28 일), FTS: 31-9/01
- ✓ **네팔**

11 월 초 중순(졸업식)
- ✓ **인도네시아 - 마라**

10 월말(솔라웨이, 졸업식 및 FTS)
- ✓ **참고사항:**

나라별 전체 일정은 아니라도
단위별 일정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신청 및 문의
해외사역본부(안지민)



5. 상반기 'BEE 오는 수요일'은 여름방학을 맞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9월 6일(수) 오후 2:02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개도 상 밑의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초대한 유대인 할머니

그녀는 우리 집에서 며칠 조용히 머물다 가겠다고 했지만, 내 평생 이 집에 그리 많은 사람이 드나든 건 처음이다.

갈릴리 북방의 국경 한참 윗동네까지 소문이 난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일행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다.

요 며칠간 아랫마을 쉼네에 얼마가 계속 생각이 났다. 귀신 들린 딸아이 때문에 수년을 고통 속에 사는 그녀.

이방인인 그녀를 실버리 집에 드나들게 할 수 없어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그녀를 찾아가 귀찮아졌다. 그녀는 즉시 맨발로 달려와 내 집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저녁까지 계속되었지만 예수 선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서부터 따라붙은 관리가 노려보고 있어서일까? 아니면 독실한 몇몇 동료들의 눈총이 따라와서일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위해 왔을 뿐이라고 친구어 선을 그으며, 야멸차게 그녀를 외면했다.

심지어 이방인인 그녀를 게에 비유하면서까지 말이다.

그제야 예수 선생이 열음 같은 눈빛을 거두고 대답했다. "그래요, 그 말이면 되었습니다. 집에 가세요. 귀신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땀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아! 저 자존심 강한 여자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부스러기 자비라도 주우려고 모욕을 달게 참는 그녀...

그녀가 흐느낀다. 그녀도 나처럼 지금해야 할 것을 깨닫.

전심을 만나려고 본심을 애써 감춘 선생의 기다림을...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